Nepal Mission News
NewLight
2013, 2, 14 제 31호
New Light Blind Nepal Center
Dobighat Lalitpur, Kathmandu Nepal
977-9803665063, 977-1-5535546(np)
070-4645-9863(kr) 972-360-7082(us)
krchlord@msn.com

NewLight

꾸마리가 백내장수술을 받았어요

선생님과 함께 카세트로 노래를 배우는 꾸마리

시각장애자인 "꾸마리의 눈이 이상해요"라고 비말라 선생이 말을 해주어 자세히 꾸마리의 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쪽 눈에 눈물이 많이 고이는 것입니다

눈물이 많이고이는 오른쪽 눈

꾸마리가 눈가를 누르자 눈물이 제법 많이 나오기에 물었습니다. 언제 언제 눈물을 짜느냐고.. 꾸마리는 하루에 3번을 짠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오후 그리도 저녁에.. 때로는 잘대도....
그래서 눈가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알게 되어 마침 한국에서 안과의사들이 의료봉사를하는 Vission Care가 2월 11부터 14일까지 있기에 12일 꾸마리를 데리고 진료가 있는 Korea Nepal Friendship Hospital에 찾

아갔습니다. 많은 환자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네팔인을 상태로 무료진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진료받기위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도 어린 꾸마리를 진료진들은 특별진료를 해주었습니다. 결과는 눈물라인이 막혀 눈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고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꾸마리가 양쪽 눈이 다 백내장이라는 것입니다. 꾸마리의 이력에는 날때부터 원인모르는 시각장애였다고하여 그런줄만 알았는데 원인이 백내장이였던 것입니다. 수술을 받으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검진의사가 말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4순절을 맞아 뉴라이트의 6식구들은 (나와 이계숙선교사,유영훈선교사 그리고 아동케어의 비말라선생과 아동 모니카와 꾸마리) 저녁7시에 모여 찬양과 기도중이었고 우리는 뉴라이트센터의 사역들과 아동들 특히 시각장애아인 꾸마리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할뿐입니다. 눈물고이는 것을 치료하려고한 일이 실명된 눈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계산기를 신기한 듯 더듬어 익히는 꾸마리

꾸마리는 다음날 다시병원에가서 피검서와 X-ray등을 통하여 간단한 검진을 마치고 13일오후 1시경 전신마취를 한후 약 1시간반 가량 걸리는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후 4시경 깨어난 꾸마리는 매우 아파했고 울기도하고 미음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쥬스를 조금마셨는데 잠시후 혈관주사를 맞을 때는 아파서 울며 먹은 것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밤을 병원에 입원하여 보내고 14일 아침 수술후의 경과를 위한 검진을 해야하는데 두려운 꾸마리가 울며 거부하는 바람에 한동안 달래서 간신히 검진을 받았습니다. 수술경과가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15일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와서 검진을 받기로 하고 센터로 돌아오는 차에 타자 꾸마리는 언제그랫느냐는 듯이 기분이 좋아지어 말도 잘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는지를 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토록 의사들이 무엇이보이는지를 물어도 대답하지않던 꾸마리가 대답을 하는 것 입니다. 두 개, 다섯 개, 그랜파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를 이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꾸마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았습니다.

수술후 맑아진 꾸마리의 눈

아동의집 인근동물원구경을 가다

새빛 아동의 집 아동들이 모처럼 인근의 센트럴동물원으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자 아이들이 동물원가고 싶다고 하여 2월10일 동물원으로 나들이를 나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마음

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처럼의 뉴라이트 차를 타고 나들이를 하는 일에 아동들에게는 그토록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즈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됐네” 복음송을 한국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제법잘 따라 부르고 잇습니다. 멀지않아 3절까지 잘 따라 부르게 될것 같습니다. 잘부르게 되면 녹음하여 올리려고 합니다

Saran Rai형제가 결혼식을 하다

신랑신부의 모습

긴장한신랑 Saran Rai
긴장한 탓인지 신랑의 얼굴이 몸씨도 굳어 있어 보기도 안스러웠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교회
교회가 좁고 긴 작은 방 하나였지만 많은 축하객들로 꽉찼습니다

시각장애자 교우이며 안마교육을 받고 있는 Saran Rai씨가 지난 2월11일 결혼식을 했습니다. 42세의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지만 성도들의 축하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편집후기

네팔의 날씨는 한층 포근해 졌습니다. 머얼리 봄이 오고 있는가 봅니다.
봄기운과 더불어 새로운 사역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에서 서정수선교사